빛의사람들

2023.3 제331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02)921-5093
FAX 02)921-7847 **E-Mail**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머리글 **이중헌 요셉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성 요셉 성월을 맞이하여

성 요셉 성월을 맞아 요셉 성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의 양부, 동정 성모 마리아의 남편,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의 수호성인 등등 요셉 성인을 지칭하는 말은 많습니다. 그만큼 요셉 성인은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몇 번 언급되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도 항상 예수, 마리아와 관련되어서만 언급될 뿐입니다. 그만큼 요셉 성인은 항상 가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 기념하는 3월 성 요셉 성월도 대부분 사순시기와 겹쳐 그 의미가 가려져 있고,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역시, 요셉 성인 자체보다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이라는 점이 더 부각되고 있으며, 5월 1일 노동자 성 요셉 축일도 성모 성월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모든 사실이 바로 요셉 성인의 성품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 성인은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언제나 겉으로 드러남 없이, 그늘에 가려, 조용히 하느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요셉은 처음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자신에게 벌어진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마리아를 위해 조용히 파혼하려 했었던 배려심 깊은 인물이었고, 이집트 피난길과 같은 시련이 닥칠 때마다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조용히 지켜내려 했던, 책임감 넘치는 가장이었으며, 예수의 공생활 전 약 30년간, 집에서는 훌륭한 가정 교사요, 일터에서는 목수라는 직업의 전수자로서 예수의 지상 생활을 묵묵히 가르쳐 준 지혜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조용하면서도 강직하게,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순명함으로써 스스로의 모습보다는 예수와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의 뜻을 드러낸 위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독히도 '나' 중심적이고, '나'만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겐 요셉 성인의 모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묵묵히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감싸주고, 사랑하는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며, 하느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신 요셉 성인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고, 뿌리 깊게 신앙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길 희망해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전체 봉사자 연수

코로나 19로 인해 미뤄졌던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봉사자 연수가 1월 18일(수) 은평구에 위치한 성앤베르 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최광희 마태오 신부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셨나 (당신께서 만난 사람들의 의미) 강의와 각 교정시설 봉사자 평가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활동이 재개되어 기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연수를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번 피정으로 인해, 2023년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10차 정기총회

1월 25일(수)~27일(금) 제주도 엠마오 하우스에서 한국가톨릭교정사목전국협의회 제10차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사제, 수도자가 한자리에 모여 2023년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의 방향과 수용자들, 출소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도움을 모색하며 친교를 도모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단법인 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7차 이사회

2월 10일(금) 교정사목센터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27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사장인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를 비롯한 이사, 감사들이 참석하여 사임 이사 및 신임이사 선임 건과 2022년도 결산의 안건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경촌 주교는 "사임하는 이사님들이 함께 해 주신 것들이 서울교구, 한국 천주교 교정사목에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어 주셨다."라며, "앞으로도 교정사목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건강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교정시설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이사, 감사님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기동성당 후원회원 모집 미사

2월 11일(토)~12일(일) 전 부위원장 김도훈 신부가 사목하고 있는 제기동성당에서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 이중헌 요셉 부위원장 신부, 송정섭 시몬 부위원장 신부의 집전으로 후원회원 모집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신자분들이 특별히 교정사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후원회원 모집 미사를 봉헌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제기동성당 주임 신부님과 부주임 신부님 그리고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설립 53주년을 맞이하여
장기봉사자들의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30년

노진규 프란치스코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저는 청소년 대상으로 학원 사업을 통하여 제가 받았던 은총을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주 토요일 오전에는 소년원에서 오후에는 분류심사원에서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봉사하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분류심사원에서 보살펴준 원생이 출소한 후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 앞으로 잘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그 후 다시 찾아와 강북에 있는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모범생이 되었다며, 본인도 앞으로 선생님같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봉사하겠습니다.

20년

김민경 베로니카 / 서울구치소 최고수

하느님께서는 재소자분들도 저희랑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재소자분들과 긴 세월 지나도록 소통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하느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명자 아녜스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며칠 전 분류심사원 봉사자 단톡방에 장기봉사자 명단에 저를 포함한 3분이 올라와 있어, 벌써 봉사한 지 20년이 흘렀구나 싶었습니다. 분류심사원을 처음 갔던 날이 생각납니다. 버스에서 청소년들이 포승줄에 묶여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내 자식 같아서 울음을 삼킨 적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과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 편에 서서 이야기하면서 들어 주고 받아주니 조금씩 마음을 여는 천진난만한 아이들, 참 예쁘고 착한 아이들입니다. 주일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떤 아이들이 왔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심사원 문이 닫혀있을 때도 심사원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 화살기도로 마무리합니다. 3년 시간이 지나 코로나가 풀리면서 심사원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동희 레지나 / 서울남부교도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어느새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회 교정 사목위원회 신부님과 직원분들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부 교도소 봉사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얹혀서 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패가 있다면 교도관들과 담장 안에서 공동체 모임과 성경 필사, 성경 완독, 묵주기도, 희생, 봉사, 특히 미사 준비 등 열성을 다하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김춘희 아기안나 / 서울구치소 최고수

듣는다는 것은 배경이 되어주는 일, 외로움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막달레나 / 서울구치소 최고수

교정사목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장기봉사자가 되었다니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최고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전날부터 설레고 함께 하는 동안에는 제가 더 많은 은총과 힘을 받는 듯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느님과 신부님 그리고 교정사목과 관련된 모든 분께 감사할 뿐입니다.

조부영 노엘라 / 서울구치소 최고수

삶의 중심이신 하느님 안에서의 작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했던 것이 벌써 십 년이 되었군요. 이 시간은 저에게 공감하는 마음과 나눔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소소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함께 해 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선옥 제노베파 / 서울구치소 최고수

하느님께서 김찬미 가비노 신부님을 통해 교정 봉사자로 불러 주시어 지금까지 형제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다녔는지 생각해 보니 들어 주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미사와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 형제님들에게는 위로와 힘이 되고 저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문순 마리아 / 서울구치소 남사

2004년 4월 월요일, 조금 일찍 성경 공부하려고 가톨릭회관 3층으로 갔다가 교정사목 월례미사가 쓰여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궁금해하며 미사참례를 하였습니다. 그 후로 매달 미사참례를 하며 교정사목에 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고 2012년 9월 봉사자 교육에 참여하고 서울구치소(남사)를 참관 하게 되었습니다. 따뜻이 맞이해 주신 봉사자님들과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번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처음 하는 일처럼 늘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선배 봉사자님들과 이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은정 안나 /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서울동부구치소 여사로 설레고 떨리던 맘으로 첫발을 내디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네요. 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이지만 늘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기에 매번 처음인 듯 떨리는 맘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무슨 큰 도움이 될까, 봉사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하는 맘도 들었고 수용자분들에 대한 작은 편견도 있었는데 미사 시간 내내 진심인 모습을 보면서 편견도 없어지고 봉사라기보다는 제가 더 많은 걸 얻거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은 거에도 감사한 맘으로 살아야겠다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정봉사를 하면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살피셨는지를 이젠 수용자분들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용자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순이 엘리사벳 / 고봉중고등학교

부족한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행복했고 은총 받았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앞에서 옆에서 도와주신 봉사자님들과 특히 소년원의 대 선배님이신 백경숙 실비아님과 곽경희 세실리아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예원 레지나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시간에 관한 생각도 없이 당연하게 주말을 오롯이 청소년 수용자들을 위해 봉헌해온 시간이 벌써 10년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한가득한 새내기(?) 봉사자에게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저의 자리에서 수용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역량을 더욱 발휘하겠습니다.

진주경 마리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원 봉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는데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그곳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언제나 제게 행복과 기쁨이었어요. 저를 초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쁨과희망은행 협업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평가

법무부 교정본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부전문가 창업교육 등 교정시설 수용 중인 출소예정자에게 창업지원을 확대하고자 서울과 경기도 소재 교도소(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정부교도소, 여주교도소) 수형자 중 잔여 형기 3월 이내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출소 전부터 창업교육 – 멘토링 – 창업준비 지원 – 창업자금 지원과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단계적 수형자 사회 정착 성공사례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며 기대 효과로는 교정 공무원과 창업교육 강사, 수형자에게 기쁨과희망은행 설립 취지, 목적과 사업에 대한 안내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창업 교육으로 우수 예비창업자 발굴과 부실 대출자를 예방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와 교정시설과의 효율적인 업무 협조가 있었습니다.

● **교육생 현황**

교정시설	교육 일자	수료 인원	평균 연령	비고
안양교도소	2022. 09. 19. ~ 23.	13	45.3	
서울남부교도소	2022. 09. 26. ~ 30.	9	34.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2022. 10. 17. ~ 21.	13	48.2	
의정부교도소	2022. 10. 24. ~ 31.	10	37.9	
여주교도소	2022. 11. 21. ~ 25.	20	46.9	
합계		65	43.8	

● **만족도 평점**

	구분	문항	안양	남부	화성	의정부	여주	평균
1	과정 만족	교육과정 구성 및 강이 진행에 만족하십니까?	4.5	4.4	4.5	4.8	4.7	4.58
2		창업교육에 참가하여 도움을 받았다.	4.5	4.4	4.5	4.8	4.7	4.58
3		창업교육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을 가졌다.	4.5	4.5	4.5	4.8	4.7	4.60
4		창업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4	4.5	4.5	4.8	4.7	4.58
5	강의 평가	창업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4.4	4.4	4.5	4.8	4.6	4.54
6		교육 강사는 창업교육 진행에 열의를 가지고 참가하였다.	4.5	4.6	4.6	4.8	4.7	4.64
7	강사 평가	교육 강사는 창업교육 진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4.4	4.7	4.5	4.8	4.7	4.62
8		교육 강사는 전문성을 가지고 노련하게 진행하였다.	4.5	4.6	4.6	4.8	4.7	4.64

주) 매우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 2점, 매우불만 1점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

출소예정자 창업 교육을 통하여 출소 후의 새 삶을 시작하실 때 작게나마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 4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 010-3732-5093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천연 인슐린인 이눌린 성분 다량 함유. 당뇨,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건강에 도움.

- **히카마 수제조청**(소화불량, 저혈당, 식도염, 장건강에 도움/식후 떠서 드시거나, 잼, 설탕, 물엿 대용)
  - 600g 1병 20,000원
- **히카마 환**(당조절, 혈액순환, 변비에 아주 좋음/히카마, 여주, 함초 배합)
  - 150g 1통(15일치) 30,000원
- **히카마 소금**(저나트륨 소금, 히카마 함초 추출물 함유)
  - 250g 1병 6,000원 / 400g 1통 10,000원

※ 택배비 별도(4,000원 / 5만원 이상 무료) • **주문전화 : 010-9057-1268**

• **계좌 : 351-1240-5877-53 / 농협 / 황금정(엠마오농장)**

행사 알림

• 3월 6일(월)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제62차 정기총회 / 10:00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11:00	/ 가톨릭회관 3층
• 3월 16일(목)	해밀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 3월 29일(수)~31(금)	서울동부구치소 여사 1기 인성교육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23/1/14~23/02/17)

2023년 1월~ 2월에는 **김미나 소화데레사, 백진하 에스텔, 이진자 세실리아, 제기동성당 110**명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더불어, **제기동성당 13명**께서는 기부금을 보내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